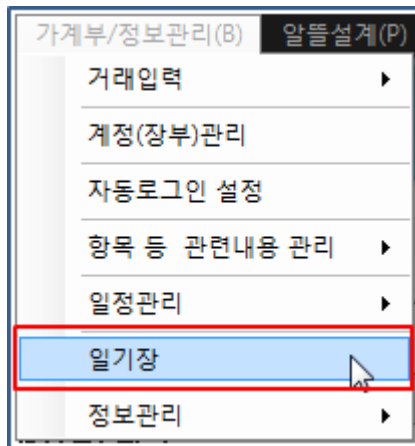


## [일기장]

머니북(MoneyBook)에 들어있는 일기장은 간단한 일기장 입니다. 멋있게 꾸밀 수도 없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기자기하지도 않고 화려한 것과는 더더욱 거리가 멉니다. 그저 내용을 기록하는 큰 메모장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제목도 첫 번째 줄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기록 합니다. 일기장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.

### [들어가기]



### [화면에 대한 이해]

머니북(MoneyBook) 버전:1.0.0.8

파일(F) 가계부/정보관리(B) 알뜰설계(P) 신용카드 통합관리(C) 유용한 기능&설정(T) 보고서/그래프 도움말(H)

Home 계정등록 거래입력 청구서 결산보기 일정입력 보고서 그래프 거래찾기

MoneyBook과 함께 더욱 부자되세요.

가이드 동영상

### 일기장

가계부/정보관리 > 일기장

1 2010년 5월 10일(월) (음)03/27

2010-05-10 월요일 (음)2010-03-27

[천정엄마]

무식하고 시끄럽고 혼스럽고 그래도 나만보면 웃는 (천정엄마)

세상 모든 엄마들이 아들 자식부터 챙길 때, 홀로 딸 예찬론을 펼친 우리 엄마. 마음은 고맙지만 바쁘게 일하는데 그냥 전화하고, 보고 싶다 찾아오고, 별 이유 없이 귀찮게 구는 엄마가 답답하게 느껴졌다. 나도 결혼 5년 차에 딸까지 둔 초보 맘인데 엄마 눈에는 아직도 품 안의 자식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.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하고 말았지만 이제 나도 그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거 같다.

어린 시절부터 말도 잘하고 똑 부러지던 우리 딸, 지숙이.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스코리아 뽐치는 외모까지 무식하고 혼스러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쁜 새끼가 나왔을까 싶다. 혼자 서울 가서 대학 다니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태산이지만... 일해서 번 돈으로 용돈도 보내주고, 결혼한다고 남자도 데려오고, 벌써 애기 엄마까지 되었다.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우리 딸이 이제 내 품에서 떠나려나 보다.

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, 지숙은 연락도 없이 천정 집으로 내려와 미뤄왔던 효녀 노릇을 시작하고... 반갑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딸의 행동에 엄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는데...

3

2 오늘은: 2010-05-10 (월요일(음:2010-03-27))

올해 쓴 일기들

05-03 [대한민국 1%] 해병대 특수수색대, 우리  
05-06 [구르를 버서난 달처럼] 왕은 백성은 나  
05-07 [허트 로커] 폭발물 제거반 EOD (허트  
05-10 [천정엄마] 무식하고 시끄럽고 혼스럽.

작성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.

4 저장 삭제

상태

[1] 달력의 년/월을 바꿀 수 있습니다.

[2] 달력과 관계없이 오늘을 나타냅니다. 만약 달력의 날짜가 오늘이 아니었을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달력의 날짜가 오늘로 바뀌게 됩니다.

[3] 본문을 입력 합니다.

[4] [저장] 버튼에 의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상태를 저장 합니다.

[A] 선택된 날짜를 표시 합니다.

[B] 해당되는 일자에 일기가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 아이콘이 있는 일자에는 일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.

[C] 기념일이 있음을 표시 합니다. 기념일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입력한 기념일도 같이 표시 합니다.

[D] 올해 쓴 일기를 모두 표시 합니다. 일기를 클릭하면 화면에 클릭한 일기가 나타납니다.